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김수경** · 신혜리*** · 김영신****

〈 목 차 〉

I. 서론	3.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II. 이론적 배경	3.3 연구의 주요변수
2.1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IV. 연구 결과
2.2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간의 관계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4.2 주요변수 특성
III. 연구방법	4.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4.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효과 검증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에 대한 정보화 역량은 장노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정보통신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에서 16년 17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17년에

는 176개국 중에 2위를 차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b). 또한 UN 전자정부발전지수를 살펴보면 190여개 중에서 2010년~2014년은 1위, 2016년 이후로 현재까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의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정보화 역량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UNPAN, 2019).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402)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godwithme2017@khu.ac.kr(주저자)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ltc.shinhyeri@gmail.com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ysunkim@khu.ac.kr(교신저자)

91.5%이며,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2010년 디지털기기 점유율이 4.9%에서 2018년 94.9%로 데스크탑 점유율을 제치는 결과가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9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도 각각 98.5%, 88.4%로 집계되어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장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고령화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장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증진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축으로서 고려하고 있다(신승윤, 김동욱, 2019).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기의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마다 새롭게 사용법을 학습하여야 하는 특성(김미영 등, 2013) 때문에 장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기기 이용의 부담을 가지기 쉽다(허원희, 김정희, 2011). 하지만 디지털기기 이용의 부담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는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의 긍정적인 디지털 이용기기 태도는 디지털 이용기기의 성과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생활스트레스 감소, 건강만족도 등을 높이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허원희, 김정희, 2011; 김미영 등, 2013; Zheng et al., 2015; Kim and Chang, 2019).

White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월드와이드

웹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신의 시야가 확장되고 웹 이용을 통해 대인관계가 확장되어 궁극적으로는 생활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Zheng et al.(2015)은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장노년층이 건강정보, 재정정보 등의 정보를 얻는데 있어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 and Chang(2019)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와 성과가 긍정적일수록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용성과를 증진시켜 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장노년층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장노년층 스스로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성취도 등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며(신용주, 구민정 2010; 김미영 등, 2012;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and Schelling, 2018), 이는 다시 디지털기기의 적극적 이용으로의 선순환이 될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강월석 등, 2013; 강보라 등, 2014; Wright, 1999). 하지만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단순한 디지털기기 접근도를 살펴본 연구들과 PC 및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노년층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정보화 지원 사업 대상 연령층인 55세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의 장노년층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태도를 보인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 구성요인인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주, 구민정 2010; 김미령 등, 2012;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Schelling, 2018). 첫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Dorin(2007)과 신용주와 구민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화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수강하지 않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기기 사용 및 기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노년기의 만족도를 향

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eifert and Schelling(2018)은 질적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결과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대처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미령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용능력이 높고, 디지털 이용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보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생활 및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o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와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이 여가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Cho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장노년층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텔레케어 프로그램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생활환경과 대인관계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QOL)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희정(2019)의 연구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수준,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건강 만족도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용 태도가 긍정적인

수록 건강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디지털 이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간의 관계

액티브 시니어 개념이 도래하면서 과거 장노년층 세대와 달리 현재 장노년층 세대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디지털 환경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경제,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8년 기준 각각 98.7%와 88.8%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전인 2008년 각각 48.9%, 19%의 이용률을 보인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특히 50대의 경우 어릴 때부터 디지털기에 익숙했던 10~20대의 디지털기기 이용률(99.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 상의 여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등의 이용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원 등, 2018; Godfrey and Johnson, 2009; Sun et al., 2013; Chung and Kim, 2015).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디지털기기 사용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김예원 등, 2018). Sun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에 대한 태도와 헬스케어 및 기술수용에 대한 행동간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컴퓨터, 태블릿 등의 디지털기에 대한 호의적일수록 웨어러블 피트니스트래커(Wearable fitness tracker)에 대하여 알게 되는 시점이 빠르고 긍정적이며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Chung and Kim(2015)의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령자가 디지털기에 대하여 학습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기기 사용에 익숙해지는 행동들이 여러가지 전자기기의 사용으로의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화기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디지털기기 사용에 있어 두려움이 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자동화기에 대한 사용 경험은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켰으며 다른 디지털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이용성과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은행 자동화기기 사용경험을 이와 유사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때 응용함으로써 전자기에 대한 성과로 연계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Godfrey and Johnson(2009)은 디지털기에 대해 접근성이 높고 호의적인 장노년층은 온라인 상에서 대인관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었고 전에는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부심과 자신감, 자부심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기기에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정보를 얻음으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지털기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장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디지털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a)의 2018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이 94.8%로 가장 높았으며, 자료 및 정보획득이 93.7%, 여가활동 9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획득 등에 대한 이용성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스트레스 감소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참여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월석 등, 2013; 강보라 등, 2014; Wright, 1999).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Wright(1999)의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상에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장노년층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노년층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안준희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가 확장되었으며 이에 대해 만족도를 느끼는 장노년층이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대인관계를 확장하는 활동은 자아통제감을 매개로 하여 모바일 상에서의 대인관계 확장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정도는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강월석 등(2013)은 정당 활동,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장노년층보다 활동을 하는 장노년층이 스스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자존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강보라 등(2014)의 연구에서도 모바일을 사용한 높은 온라인 정보활동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된 연구 중에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관한 관계를 통합적으

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가 디지털기기 이용성도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3. 디지털기기 이용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디지털기기 이용성도는 디지털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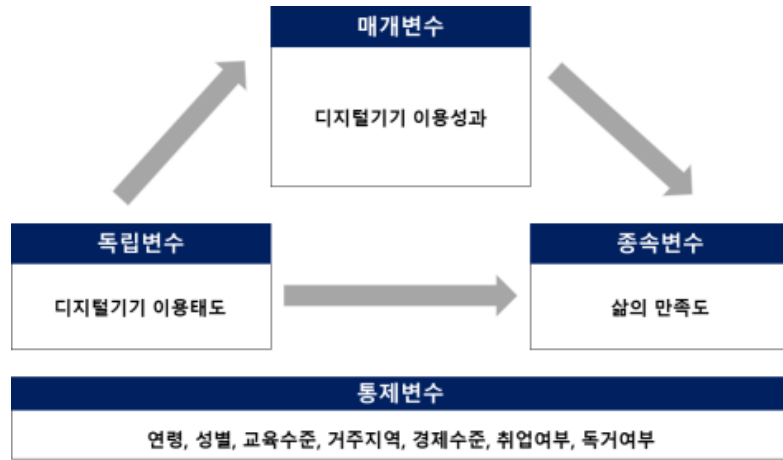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되었으며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 도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의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표본크기는 15,000명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표본추출은 일반국민과 농어민은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집단은 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료 대행 기관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성별, 거주 지역, 학

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디지털 이용 동기, 디지털 이용 태도, 디지털 이용 성과 등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2,303명 중에서 모든 변수에 대하여 결측치를 제거하여 1,66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거주 지역, 연령, 독거여부, 경제수준, 취업유무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step 분석과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모든 연속 변수들이 정상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귀표준화 잔차들이 직선에 근접하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산점도에서도 잔차의 이분산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Dubin-Watson 상관계수를 통해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회귀모형의 값이 1.824, 1.849, 1.849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그림 1> 연구모형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형의 상승변량(VIF)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최솟값이 1.090, 최댓값이 1.84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5.0를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3.3 연구의 주요변수

3.3.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자신감, 태도 등에 대한 1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2)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기능을 잘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3)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이용할 때 스스로 활용방법을 습득할 자신이 있다. 4)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자신이 있다. 5)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는

편이다. 6) 나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이 향후 지속적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내 삶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8) 나는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체크한다. 9) 나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한다. 10) 나는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SW 업데이트 등 디지털 기기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 한다. 11) 나는 내 자신을 평생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교육 등을 즐겨 수행한다. 위의 문항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의 기준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과 “매우 그렇다”= 4로 코딩하여 합산하여 평균화 하였다. 응답범주는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적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35로 나타났다.

3.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s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atisfaction With Lifes Scale는 주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측정하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2)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3)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5)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된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합산하였다. 응답범주는 5-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 가능하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89로 나타났다.

3.3.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디지털기기(PC 또는 스마트폰 등) 이용에 대한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여가 활동의 기회가 많아져 즐거워졌다. 2)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 3)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 4)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5)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6)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7) 지

인들과 일상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위의 문항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의 기준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과 “매우 그렇다”= 4로 코딩하여 합산하여 평균화 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응답범주는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기기를 이용할수록 지식이나 정보접근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55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55~64세가 1,047명(6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5~74세가 556명(33.5%), 75~84세가 58명(3.5%), 85세 이상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시지역이 1,423명(85.6%)이고 군지역이 239명(1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921명(5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졸 446명(26.8%), 초졸 이하 156명(9.4%), 대졸이상 139명(8.4%)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여부의 경우 비독거가 1,528명(91.9%)였으며 취업여부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장노년층이 1,043명(62.8%)으로 미취업인 장노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705명, 42.4%)보다 여성(957명, 57.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 423명(25.5%), 200만원 미만 389명(2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전체 (n=1,662)	
		n	%
연령	55-64세	1,047	63.0
	65-74세	556	33.5
	75-84세	58	3.5
	85세 이상	1	0.1
거주지역	시	1,423	85.6
	군	239	14.4
교육수준	초졸이하	156	9.4
	중졸	446	26.8
	고졸	921	55.4
	대졸이상	139	8.4
독거여부	비독거	1,528	91.9
	독거	134	8.1
성별	남성	705	42.4
	여성	957	57.6
취업여부	미취업	619	37.2
	취업	1,043	62.8
경제수준	200만원 미만	389	23.4
	300만원 미만	423	25.5
	400만원 미만	361	21.7
	500만원 미만	254	15.3
	500만원 이상	235	14.1

4.2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매개변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이며,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5점에서 33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20.92(SD=4.26)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최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대 4점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2.29(SD=0.63)점으로 장노년층들은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잘 적응하는 편이다', '스스로 활용방법을 습득할 자신이 있다' 등에 대해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최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대 4점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삶의 만족도	20.92	4.26	5	33	-0.15	0.47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2.29	0.63	1	4	0.08	-0.54
디지털 기기 이용 성과	2.77	0.57	1	4	-0.37	0.10

4.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 모형에 포함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및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분석 결과

변수	삶의 만족도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삶의 만족도	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0.373***	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0.297***	0.649***	1

* p<0.05, ** p<0.01, *** p<0.001

4.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매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Baron and Kenny(1986)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 이용태도의 영향 분석, 둘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영향분석, 셋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효과 분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4.4.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영향 분석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beta = 0.619, p < 0.001$). 즉, 디지털 이용에 대해 적극

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장노년층이 비적극적인 장노년층보다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인 건강, 여가, 대인관계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신용주, 구민정, 2010;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and Schelling, 2018).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거주지역 변수와 경제수준 변수가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장노년층이 군에 거주하는 장노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에 거주하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 노후준비 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안기선, 김윤정, 2012; 이윤진 등, 2013; 전명진, 문성원, 2016). 경제수준 또한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유재남, 2015; 서명희 등, 2017; 임안나,

<표 4>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영향 검증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변인		B(β)	SE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0.565(0.619)***	0.018
통제변수	연령	-0.020(-0.019)	0.022
	거주지역	0.070(0.042)*	0.032
	독거여부	0.056(0.026)	0.041
	성별	-0.022(-0.019)	0.024
	취업여부	-0.003(-0.002)	0.026
	교육수준	0.004(0.006)	0.017
	경제수준	0.052(0.122)***	0.010
F		160.349***	
R ² (Adj. R ²)		0.437(0.434)	

* p<0.05, ** p<0.01, *** p<0.001

박영숙, 2017).

4.4.2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영향 분석

<표 5>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장노년층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있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즉,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회귀계수는 0.379($p<0.001$)로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장노년층일수록 디지털 상에서 정보를 더 빨리 획득하거나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독거여부, 성별,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1인 독거 가구인 장노년층에 비해 2인 이상 다인가구로 구성된 장노년층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은 연령과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갖는다(Kim et al., 2017; Sum et al., 2008; Tirado et al., 2016; 양정애, 장현미, 2014)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다는 것인데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자 대부분(1,603명, 96.5%)이 전기노인(74세 이하)에 해당되어 장노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장노년층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인 이상 다인가구가 독거가구보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음은 디지털기기 이용에 있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 있음의 여부가 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황현정, 황용석, 2017).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디지털기

<표 5>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매개변수)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독립변수)의 영향 검증

종속변수 :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변인		B(β)	SE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2.558(0.379)***	0.164
통제변수	연령	0.635(0.083)**	0.197
	거주지역	0.536(0.044)	0.287
	독거여부	-0.925 (-0.059)*	0.372
	성별	0.548(0.063)*	0.218
	취업여부	0.111(0.013)	0.231
	교육수준	0.020(0.004)	0.152
	경제수준	0.232(0.074)**	0.087
F		37.933***	
R ² (Adj. R ²)		0.155(0.151)	

* $p<0.05$, ** $p<0.01$, *** $p<0.001$

기 이용과 성과가 높다는 맥락(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2016; Tirado et al., 2016)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기이용능력이 요구되기 때문(김봉섭, 김정미, 2009; 정순돌, 2019; 신승윤, 김동욱, 2019)으로 판단할 수 있다.

4.4.3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장노년층의 디지털기 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표 6>에서는 독립 변수, 매개변수를 함께 추가하여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유의미성 변화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우선, <표 6>의 첫 번째 행과 같이,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 기 이용태도의 회귀계수가 0.565($p < 0.001$)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장노년층의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n and Kenny, 1986). 즉, 장노년층의 디지털기 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분적으로는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표 6>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변인		매개변수 투입 이전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	
		B(β)	SE	B(β)	SE
독립 변수	디지털기 기 이용태도	0.565 (0.619)***	0.01	2.183 (0.323)***	0.32
매개 변수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			0.663 (0.090)**	0.09
통제 변수	연령	-0.020 (-0.019)	0.02	0.648 (0.085)**	0.08
	거주지역	0.070 (0.042)*	0.03	0.490 (0.040)	0.04
	독거여부	0.056 (0.026)	0.04	-0.962 (-0.061)**	0.37
	성별	-0.022 (-0.019)	0.02	0.562 (0.065)**	0.21
	취업여부	-0.003 (-0.002)	0.02	0.113 (0.013)	0.23
	교육수준	0.004 (0.006)	0.01	0.017 (0.003)	0.15
	경제수준	0.052 (0.122)***	0.01	0.198 (0.063)*	0.087
F		160.349***		34.870***	
R ² (Adj. R ²)		0.437(0.434)		0.160(0.155)	

* $p < 0.05$, ** $p < 0.01$, *** $p < 0.001$

있었다.

이상에서 발견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서 검증해본 결과, 매개변수의 검정량이 7.171로 나와, 유의수준 0.001 내에서 $Z \geq |1.96|$ 의 조건을 충족하여 부분매개가 있음으로 검증됨으로써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통해서도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1인 독거 가구인 장노년층에 비해 가족 구성이 다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남성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55세 이상 장노년층 1,66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장노년층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장노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그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신기술 및 제품에 잘 적응하거나 사용에 있어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장노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장노년층들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을 비롯한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주, 구민정, 2010;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and Schelling, 2018).

둘째, 장노년층의 디지털 이용태도는 디지털 이용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김예원 등, 2018; Godfrey and Johnson, 2009; Sun et al., 2013; Chung and Kim, 2015)들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장노년층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고급기능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 등에 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장노년층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안준희 등, 2011; 심선희, 문재영, 2012; Yoon et al., 2015; Jung et al., 2017; 정민숙, 이 유리, 2012; Dorin, 2007; Ballantyne et al., 2010; Teh et al., 2010; Kang et al., 2014; Chiu et al., 2016; Song and Chen, 2019).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 이용성과 간의 유의한 분석결과를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이용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디지털 이용태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인 디지털 이용태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이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영환 등(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디지털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에 적극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때, 연령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장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하기 전 개인의 정보화 수준 및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전문기관 선정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기기 이용 교육의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고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중고급 과정은 민간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장노년층들이 디지털기기 이용의 성

취감을 느끼고 이는 긍정적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이용태도가 이용성과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분석결과는 디지털이용태도와 이용성과 두 요인을 디지털기기를 단순히 다루는 능력을 뛰어넘어 장노년층 삶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안기선, 김윤정 2012; 이운진 등, 2013; 전명진, 문성원, 2016)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노년층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 현금자동입출금기 등과 같은 무인단말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인단말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노년층들은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식당에 가도 주문을 못하고 나오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단말기의 글자크기를 크게 하거나, 외래어 및 서비스 이용 단계 간소화, 기기 이용에 대한 음성안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용방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창구 및 인력을 배치한다면 장노년층이 삶 속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거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에 IT업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장노년층들을 활용하여 동년배를 위한 디지털기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은퇴 직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노년기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이용기기와 성과 간의 관계

에서 나아가 디지털 이용 태도와 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이용의 주관적인 태도가 실제 장노년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심리적인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노년층의 신체·심리·사회적 변수들과 디지털 이용동기·이용목적 등 대한 변수 추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이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을 감안했을 때,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디지털기기 이용과 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추후 발간 된 디지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노년층의 디지털 실태 및 이용현황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대응 현황과 시사점.” 2012
- 강보라, 김희섭, 이미숙.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 활동과 삶의 만족감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 2014, pp.159-175.
-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 “스마트폰 정보 활용과 이용성과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 제1호, 2013, pp.199-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8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 2017년 ICT 발전지수” 2018b
- 김미령, 권순재, 박충선, “베이비붐세대의 정보 활용이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7권 2012, pp.113-136.
- 김미영, 강윤희, 정덕유, 이건설,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건강정보활용.” 질적연구, 제14권 제1호, pp.13-22. <https://doi.org/10.22284/qr.2013.14.1.13>
- 김봉섭, 김정미, “노년층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연구-정보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2009, pp.193-222.
- 김예원, 한세미, 김기성, “중고령층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9권 제3호, 2018, pp.1-23.
- 김희정, “노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건강 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문영환, 홍아름, 황준석, “이용자의 성격특성과 접근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8권 제2호, 2017, pp.33-64.
- 서명희, 김영희, 이현옥. (2017).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2017,

- pp.718-727.
- 신승윤, 김동욱, “장노년층의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4권 제2호, 2019, pp.227-267
- 신용주, 구민정, “노인 정보화교육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3권 제4호, 2010, pp.119-147.
- 심선희, 문재영, “모바일 SNS 속성이 관계형성과 정보공유를 매개로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품질경영학회지 제40권 제1호, 2010, pp.61.
- 안기선, 김윤정,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중단적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3호 제7권, 2012, pp.3007-3015.
- 안준희, 임경춘, 이윤정, 김경식, “컴퓨터/인터넷 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7호, 2011, pp.406-417.
- 양정애, 장현미,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능력이 상품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2호 2014, pp.160-190.
- 유재남,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중단분석.” 노인복지연구, 제68권, 2015, pp.331-356.
- 이운진, 신혜리, 이민아, “은퇴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노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13, pp.35-59.
- 임안나, 박영숙,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2017, pp.675-682.
- 전명진, 문성원,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노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6, pp.153-171.
- 정민숙, 이유리, “정보화교육 참여노인의 인터넷활용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5권 제1호, 2012, pp.63-85.
- 정순돌,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 2019, pp.179-214.
- 한국경제. “멋쟁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온다”, 2017,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70423685>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8
- 허원희, 김정이, “프린팅을 위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제37권, 2011, pp.195-201.
- 황현정, 황용석,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가구구성형태

-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17, pp.359-386.
- Ballantyne, A., Trenwith, L., Zubrinich, S., Corlis, M., “I Feel Less Lonely’: what Older People Say about Participating in a Social Networking Website.” *Quality in Ageing and Older Adults*, Vol. 11, No. 3, 2010, pp.25-35. <https://doi.org/10.5042/qiaoa.2010.0526>
-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1986, pp.1173.
- Chiu, C. J., Hu, Y. H., Lin, D. C., Chang, F. Y., Chang, C. S., Lai, C. F., “The Attitudes, Impact, and Learning Needs of Older Adults Using Apps on Touchscreen Mobile Devices: Results from a Pilot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63, 2016, pp.189-197. <https://doi.org/10.1016/j.chb.2016.05.020>
- Chou, C. C., Chang, C. P., Lee, T. T., Chou, H. F., Mills, M. E., “Technology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a Telecare Program.” *CI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Vol. 31, No. 7, 2013, pp.335-342. <https://doi.org/10.1097/NXN.0b013e318295e5ce>
- Chung, J., Kim, H.,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Elderly’s Use of Automated Transaction,” 201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1985, pp.71-75.
- Dorin, M., “Online Education of Older Adults and its Relation to Life Satisfaction.” *Educational Gerontology*, Vol. 33, No. 2, 2007, pp.127-143. <https://doi.org/10.1080/03601270600850776>
- Godfrey, M., Johnson, O., “Digital Circles of Support: Mee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Older Peop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5, No. 3, 2009, pp.633- 642.
- Heo, J., Kim, J., Won, Y. 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Vol. 35, No. 1, 2011, pp.43-54. <https://doi.org/10.1080/01924788.2010.545975>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A Study on ICT Adoption and Use of the Aged and Policy Approaches to Improve Digital Welfare.”, 2016
- Jung, E. H., Walden, J., Johnson, A. C., Sundar, S. S., “Social Networking in the Aging Context: Why Older Adults use or

- Avoid Facebook.”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 34, No. 7, 2017, pp.1071-1080. <https://doi.org/10.1016/j.tele.2017.04.015>
- Kang, B., Kim, H., Lee, M.,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8, No. 2, 2014, pp.159-175. <https://doi.org/10.4275/KSLIS.2014.48.2.159>
- Kim, H. J., Chang, S. J.,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Elderly People: Correlation and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Based on the 2017 Digital Divide Survey.”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Conference*, 2019, pp.370-370.
- Kim, Y, Cho, Y., Suh, Y.,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mong the Elderly: A Focus on Digital Literacy and Quality of Life”, 2017
- Paek, K., Bong, J., Shin, Y.,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nd Resolution Methods of the Smart Divide of Older Adults.” *Journal of KIISE*, Vol. 42, No. 10, 2015, pp.1207-1221.
- Seifert, A., Schelling, H. R., “Seniors Online: Attitudes Toward the Internet and Coping With Everyday Lif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7, No. 1, 2018, pp.99-109. <https://doi.org/10.1177/0733464816669805>
- Song, Y., Chen, Y. 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ong Early and Late Middle Aged Adults in Urban China: Daily use and Anticipated Support in Old Age.”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019 <https://doi.org/10.1111/ajag.12668>
- Sum, S., Mathews, R. M., Hughes, I., Campbell, A., “Internet use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 11, No. 2, 2008, pp.208-211.
- Sun, Y., Wang, N., Guo, X., Peng, Z., “Understanding the Acceptance of Mobile Health Services: a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Alternative Models.”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 14, No. 2, 2013, pp.183.
- Teh, P. L., Chong, C. W., Yong, C. C., Yew, S. Y., “Internet Self-Efficacy, Computer Self-Efficacy and Cultural Factors on Knowledge Sharing Behavior.”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Vol. 4, No. 18, 2010, pp.4086-4095.
- Tirado-Morueta, R., Hernando-Gómez, Á., Aguedad-Gomez, J. I., (Spai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9, No. 10, 2016, pp.1427-1444.
- UPAN(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http://www.unpan.org/>, 2019
- White, H., McConnell, E., Clipp, E., Bynum,

L., Teague, C., Navas, L., Halbrecht, H., “Surfing the Net in Later Lif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ilot Study of Computer Us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18, No. 3, 1999, pp.358-378.

Wright, K., “The Communication of Social Support Within an On-Line Community for Older Adult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eniorNet Community.” *Communication Quarterly*, Vol. 47, No. 4, 1999, pp.S33.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16482080?accountid=11931>

Yoon, H., Lee, O., Beum, K., Gim, Y., “Effect of IT Education on On-Line Social Relationship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5, 2015, pp.283-294.

Zheng, R., Spears, J., Luptak, M., Wilby, F., “Understanding Older Adults’ Perceptions of Internet Us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ducational Gerontology*, Vol. 41, No. 7, 2015, pp.504-518.

김 수 경 (Kim, Su Kyoung)



경희대학교 노년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박사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인, 장기요양, 기술활용 등이다.

신 혜 리 (Shin, Hye Ri)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인, 정책, 장기요양, 돌봄기술 등이다.

김 영 선 (Kim, Young Sun)



연세대학교 심리학 석사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부교수(BK21 4단계 교육연구단장)으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AgeTech(고령친화기술), 디지털 격차, 고령화정책 등이다

<Abstract>

The Effect of the User Attitude towards Digital Device of the Middle and Older Adult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Kim, Su Kyoung · Shin, Hye Ri · Kim, Young Sun

Purpos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Using the data of 2018 Digital Divid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aron & Kenny (1986) 's 3 step process, targeting 1,662 adults older than 55.

Finding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user attitude of middle and older aged peopl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effect of user Attitude towards Digital Device of middle and older citizens is partially mediated by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n providing informatization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to promote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the elderly,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sp the level and inclination of informatization individually, and furthermore present improvements for wireless devices that the elderly can easily access in their daily liv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groundwork for a practical intervention to boost positive attitude towards using digital device to enhance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nd older aged people.

Keyword: Middle and Older Aged Adults, Attitude towards Digital Device, Life Satisfaction,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6일 접수, 2021년 3월 19일 1차 심사, 2021년 3월 29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